

BP 텍사스 정유공장 “미국 최대 오염원”

2005년 폭발사고로 15명의 희생자를 낸 영국 BP의 텍사스 PLC 정유공장이 미국의 최대 환경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7일 미국 환경청(EPA) 자료에 따르면, 2005년 BP 텍사스 정유공장은 2003년에 비해 무려 3배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BP의 환경 오염원 배출은 2004년 미국 전체 배출 증가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미국 환경당국은 이에 따라 BP의 환경 오염원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BP는 거액의 벌금을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EPA는 앞서 300여건의 환경·안전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BP에 2130만달러(약 19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BP 텍사스 정유공장에서는 2005년 3월23일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직원 15명이 사망하고 170명여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텍사스 AP=연합뉴스)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10>